

S#1 어두운 공연장 무대 위의 끝단 (장소 : 아트센터 공연장)

어두운 무대위에서 조명이 비추며 실루엣이 드러난다



배우B : 제발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이리다 다가는 다 죽어!

다시 암전되며 적자행진을 시작할 당시 닦쳤던 위기들이  
슬라이드로 빠르게 넘어간다

S#2 공연장 무대위 (장소 : 아트센터 공연장)

배우A 등장 디벨롭 필요

배우A : 얼음!!! 나는 이 회사를 다녀왔어요.



다시 암전되며 공연장 계단으로 이동해 뛰어 올라가는 모습



S#3 공연장 계단 (장소 : 아트센터 공연장)

배우 C,D,E 등장 고민 필요

배우A : C,D,E 에게 지시. 대사 추후 설정(카테고리 : 자산매각, 비용절감, 수익확대)

지시를 받을 때마다 각 배우 C,D,E 고개를 끄덕이며 수궁  
이후에 계단을 뛰어가며 병정 2체를 제압하고 헉헉 거리며 앞을 바라본다.



계단 위에 자리한 공연장 문이 열리며 빛이 들어오고 병정 8명이 총을 들고  
정렬한채로 서있다.(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기 위한 장치임)



S#4 회의장 전면 (장소 : 아트센터 11F 대회의실)

암살에서 본인을 변호하는 이정재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입고 있던 개량한복 상의를 휘날리게 벗는다.(“구멍이 두 개가 있지요” 장면)



배우A : 저에게는 아직 부채가 200조가 있지요! + 해당 영화 대사 활용해 극복할거라는  
내용

개량한복 대신 오징어게임 참가자 튜리닝을 입으며 화면전환

S#5 공연장 계단 (장소 : 아트센터 공연장)

츄리닝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대치한 병정들에게로  
당당하게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 병정과 주인공의 모습을 교차로 보여준다.

### S#6 공연장 바깥

수양대군 이정재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강렬한 눈빛과 함께 카메라를 응시



배우A : 내가 후자를 낼 상인가

눈빛을 클로즈업하고 눈동자가 한전 로고로 바뀌며 마무리

-끝-